



농업을 살리라.

권 순 채 통일회원

경북 경주시 내남면
(항토문화연구가, 수필가)

새정부 들어 쉬지도 않고
정부 부처 줄인답시고
농촌진흥청 없앤다고 외치다가
우리의 자존심
국보1호 송례문을 불태우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벌이고 벌려도
끝이 없이
민족의 자존심 지켜 나가려는데
웬 불방망이 휘둘리고
잡아 가두니
숨 막히는 농심
어디에다 호소할까?

경제 위기에
풍년 농사 외쳐 보는데
농민의 피 빨아 먹는
고급관리 쌀 직불금 받아 가니
농민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도 정부는 두둔하고 나서니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네.

농촌경제 살리려 하지 않고
농민만 우습게보니
이래서 어찌 믿고 산단 말인가.
부디 우리 농업을 살리려
힘써 주소서
믿고 또 믿어 보리라.

외치고
외쳐 봐도
끝이 없네.
아무리 농민을 업신여긴들
농사 안지으며는
안되네요.
안 먹고는 못사니 말이다.
먹을거리가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어쨌든 다른 공산품을
외국에 팔려니

외국산 농산물을 들여와야 하고
농민이 희생당하고
농업은 등한시 하고
농촌은 오염 투성이에
돈 많은 외지인에게 내주고
쫓겨나니 말이다.

공산품 팔아 남는 돈
농민위해 쓰면 어떨까?
복지 농촌 건설 외쳐도
죽는 것은 농민들이더라.
농촌이 잘살면
도시는 복덩어리더라.